# 여수시, 탄소포집활용 사업 실증부지 공모 선정

### 과기부 주관…NDC 달성 과제
### 2026년부터 5년간 9000억 투입
### GS칼텍스와 함께 업무협약
### 연간 4000만톤 온실가스 감축

여수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실증부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기술 전 주기를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8월 전라남도, GS칼텍스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평가를 대비했으며 실증 R&D 추진계획, 사업화 방안 추진 등에 대한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물질(올레핀, 납사 등), 폴리올 등으로 전환하는 공정 실증을 수행하게 됐으며, 연간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기술' 지원으로 산단 경쟁력과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시가 향후 탄소포집활용(CCU) 시장을 선점하도록 미래 신산업 창출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부지선정 공모에 총 27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여수시를 포함한 5개 실증부지가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실증부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약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 광양시, '용지큰줄다리기 전승자 발굴·육성 과정' 수료식

광양시는 지난 5일 2024년 국가유산청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김 풍작 소원 비세_용지큰줄다리기'의 네 번째 프로그램인 '용지큰줄다리기 전승자 발굴·육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2022년부터 용지큰줄다리기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김 풍작 소원비세_용지큰줄다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승자 발굴·육성 과정은 △1643년 세계 최초로 김 양식에 성공한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김 풍작 기원' 용지큰줄다리기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 △지역의 젊은 세대 참여를 통한 전승 지속가능성 확보 △체험용 중줄 작은줄 제작을 통한 청소년 초등학생 등 차세대 참여 기반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태인동 광양김문화체험장과 용지큰줄다리기 전시관에서는 △용지큰줄다리기 실연용 큰줄 제작 △용지큰줄다리기 체험을 위한 청소년용 중줄 및 초등학생용 작은줄 제작 △용지큰줄다리기 줄소리 교육 등의 15회 과정이 진행됐다.

아울러 1993년 용지큰줄다리기 복원부터 큰 줄을 만들고 있는 줄만들기(드리기)꾼과 용지큰줄다리기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줄 소리꾼의 30년 넘은 전통 기술 전수도 이뤄졌다.

김영웅 용지큰줄다리기보존회장은 "이번 과정은 용지큰줄다리기 보존·전승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전승자 발굴·육성 과정의 지속을 위해 수료자들의 분기별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승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전승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용지큰줄다리기는 K-슈퍼푸드로 성장한 김 식품 문화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지역 대표적인 미래 무형유산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지정 무형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활용 관광 콘텐츠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어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 분야에 투입될 필리핀 계절근로자 51명이 지난 22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외국인 노동자 입국…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여수시는 어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51명이 지난 22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29명으로, 남은 인력은 이달 내 순차 입국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들은 굴 양식 어가에 배치돼 양식물 선별·세척·포장·가공 작업에 투입되며, 굴 수확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근로한 후 출국하게 된다.

시는 통역원을 고용해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수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굴 수확을 앞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종사 업종 다변화와 도입 인력 증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필리핀 우바이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기대 고조

내달 1일 막을 여는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2일 접수를 시작한 순천·쿠키런 콜라보 캠핑 체험은 접수 페이지 오픈 1분 만에 모집인원 2배에 달하는 100팀이 등록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캠핑 체험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냥 캠핑이 아니고 정원에서 캐릭터랑 합쳐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신선하다", "오천그린광장에서 아이들과 머무르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청했다"고 전하며 이색 캠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릭터 캠핑 체험뿐만 아니라 콘텐츠 페스티벌 기간 운영되는 열기구 체험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누구나 오천그린광장 위를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를 탑승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무료이고, 현장 접수로만 진행된다. 1회당 가족(4~5명) 단위로 약 10분 동안 오천그린광장 상공에서 동천과 정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열기구 체험은 오후 1시~3시, 3시30분~5시30분, 6시~7시까지 시간대별 3타임으로 나눠 운영되며 당일 풍속 상태와 날씨에 따라 탑승 시간과 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여타 다른 콘텐츠 행사와는 달리 실내에서 벗어나 푸른 정원으로 뛰쳐나온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장흥군 부산면,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장흥군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특화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김재학)의 후원으로 추진되며, 부산면에 실제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에 직접 찾아가 미역국, 전, 반찬, 제철 과일과 케이크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식 제고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도모하며 올해 지원 대상은 40명이다.

10월 생신상을 받은 한 어르신은 "면으로부터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황정숙 부산면장은 "소소한 생신상에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지나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신이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따뜻한 축하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보성군 '우수 웰니스 관광지' 할인
###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할인캠페인'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할인캠페인은 올해 6월에 진행된 성공적인 할인캠페인의 결과로, '하반기 우수 웰니스 관광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할인권 구매는 '여기어때' 앱 설치 후 회원가입→'검색' 선택→'레저·티켓' 선택→'숲 힐링 체험' 검색→할인 쿠폰 내려받기→일정 선택 후 할인 금액으로 결제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제품 만들기 △숲 체험 △녹차 족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가 할인캠페인 기간 이용 가격은 정상가 3만원에서 80% 할인된 6000원으로 제공되며 체험은 매주 화, 목,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 고흥군 '청년 프리마켓' 개최
### 26일 녹동 바다정원서

고흥군은 창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프리마켓을 오는 26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프리마켓'은 지역에서 창업 또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7일과 10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된다. 참여와 홍보의 기회가 적었던 창업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리마켓은 지난 10월 14일 공고를 통해 8개 업체를 모집했으며 26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액세서리, 디저트, 두릅·마늘종 장아찌, 숯불 생선구이, 음료, 도자기, 간식 등 청년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고흥의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9일 청년 프리마켓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귀농 후 농사를 지으며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었으나, 프리마켓 참여를 통해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먹거리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프리마켓을 상시 운영해 줄 것을 고흥군 대표 누리집 게시판(칭찬합시다)에 건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리마켓은 녹동항 드론쇼가 진행되는 곳에서 열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판매와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프리마켓과 같이 창업 후에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단계별 시책들을 발굴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에 활력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